

관광지선호속성 세분화에 따른 노인관광자의 관광특성에 관한 연구 : 대구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nior Tourism Characteristics
by the Segmentation of Preference Attributes for Destination
: A Case of Daegu City

곽재용 대구가톨릭대학교 관광학과 강의전담교수 (제1연구자)

하정순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복지주거학과 강사

※ 주요단어: 노인관광, 관광지선호속성, 관광특성

목 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 1. 관광지선호속성
 - 2. 노인의 관광특성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 IV. 조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 조사대상자의 관광특성
 - 3. 관광지선호속성 유형분류
 - 4. 관광지선호속성 세분화에 따른 노인관광자의 일반적 특성
 - 5. 관광지선호속성 세분화에 따른 노인관광자의 관광특성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관광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광자, 관광목적지, 관광매체 등 관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뿐만이 아니라 관광 상품, 가격, 거리, 촉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관광지는 관광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어 국내외 관광시장에 제공됨으로써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다.

관광지는 사람들이 관광욕구 충족을 위해 관광 자원·시설들이 결합되어 있는 일정한 구역으로서(여정태, 1993) 관광자원의 이용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관광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지역공간을 의미한다.

즉 관광지는 관광편의시설과 서비스의 묶음으로 이는 다른 유형의 소비재 또는 서비스와 같이 주어진 선택상황에서 특정한 개인에게 관광매력을 함께 결정하는 다차원의 속성으로 구성된다(Lew, 1987).

자연적인 속성으로 자연경관이나 기후 그리고 역사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속성이며, 인위적인 속성으로 숙박시설, 쇼핑시설, 스포츠 및 오락시설, 휴식시설 등의 시설 요소와 주민이나 종업원의 태도, 친절성 등과 접근성, 비용 등의 서비스 요소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면 판매와 촉진을 통해 국내외 관광시장에 제공되어 관광객에게 매력을 주는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애주, 1988).

오늘날 관광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의 하나로 관광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특히 자신의 가치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관광서비스나 관광지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정익준, 2001).

관광자마다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관광지를 선택하고픈 욕구가 있고 노인관광자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이러한 노인관광자의 욕구를 파악해 그들의 선호와 활동에 맞는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노인관광은 복지관광 차원의 일환으로 노인관광실태 및 개선점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노인을 위한 관광은 효도관광이 전부라는 생각이 대중의 마음 속에 각인되어왔다.

노인도 과거에는 가난과 무기력으로 연관되는 도식적 이미지가 많았다. 그러나 도래할 고령사회에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차며, 교육수준의 향상, 가치분 소득의 증대,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사조의 침투, 복지정책의 확충 등으로 관광특성이나 관광지 선호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관광지선호속성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연구가 되어왔고 세분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지선호속성에 따라 관광자의 관광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관광자의 관광지선호속성을 세분화하여 관광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노인관광자를 위한 관광지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있다.

II. 선행연구

1. 관광지선호속성

관광자가 어느 관광목적지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광지에 대해 우호적인 선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광자는 그 관광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행동욕구를 가지게 된다. 결국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는 각 관광지에 관련된 여러 관광지속성들에 대해서 관광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관광지선호속성이란 유인요인(Pull Factor)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관광목적지가 지니고 있는 일종의 관광상품적(편익)인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유인요인은 관광목적지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매력속성들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선호속성이란 관광목적지의 여러 물리적 요소를 경험적으로 분류하여 각 요소별로 기대나 선호도, 혹은 만족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하나의 관광지에 대한 관광자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의미한다. 이는 관광자를 유인할 만한 요소들을 관광지가 어떻게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강조하는 관광지 포지셔닝의 개념이기도 하다. 이처럼 하나의 관광목적지가 지니고 있는 특정한 성질, 즉 긍정적인 요소 또는 매력적인 요소를 관광목적지 선호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관광자원(Tourism Resources) 혹은 관광 매력물(Attraction)이라는 용어와도 상통한다(고동우, 1988).

관광매력속성들의 구성은 관광지의 관광자원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박석희(1989)는 자원의 성격 및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관광매력속성을 해

변, 낚시, 휴양지 등의 자연자원 의존형, 박물관, 유적, 목장 등의 문화자원 의존형 그리고 골프장, 쇼핑센터, 주제공원 등의 인공시설자원 의존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Rao & Thomas(1992)는 여행 행태를 관광여행, 도시여행, 야외여행, 휴양지여행, 유람선여행, 주제공원과 특별 이벤트여행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관광지선호속성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중 기후여행이 관광지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광속성이었고 식사가 여행행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Goodrich(1977)는 중·상의 소득층을 대상으로 특정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데 관광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속성을 중요도에 따라 경치의 아름다움, 주민들의 태도, 적절한 숙박시설, 휴식 및 긴장해소, 문화에 대한 흥미, 음식(요리), 수상스포츠, 쇼핑시설, 유흥, 골프 및 테니스순으로 나열하였다. 광노엽(1998)은 여름 휴가지 선택행동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숙박시설의 질, 이용활동시설, 접근성 등 3개 속성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였고, 특히 숙박시설의 질에서는 가격의 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진병렬(2001)은 관광자 가치가 관광지선호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관광지성격의 적합성, 유흥·위락 시설의 구비, 환경 및 교육적 기준, 지역관광발전의 연계성으로 나누어 관광자의 지각과 선호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는 주로 가치가 관광지선호속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광지선호속성의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관광지선호속성을 세분화하여 관광자의 관광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콕노엽(1998), 진병렬(2001)의 연구에서 관광지선호속성에 대한 요인 중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격, 그리고 Rao & Thomas(1992)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연, 시설과 교육·문화의 선호속성은 진병렬(2001)의 연구를 참조하여 관광지선호속성을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선호속성을 자연매력성, 가격적합성, 시설다양성, 교육·문화중요성으로 구성하였다.

2. 노인의 관광특성

노인들은 은퇴나 배우자 사망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므로, 어떤 활동들은 강화하고 또 다른 활동들은 줄이면서 그들의 삶을 재조정해 나간다. 특히 평균수명 연장과 여가시간의 확대, 연금 등으로 인한 경제력 확대로 관광행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Fannin(1985)은 미국인들의 국내·외 관광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55세 이상의 인구에서 관광행동 비율이 높다고 하였고, Bartos(1980)는 50세 이상의 노인들은 국내·해외여행에 적극적이며 여행을 이용하고, 해외 유람선을 타며, 국내 버스여행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Pohlmann(2001)은 노인들의 관광특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장기간 더 많이 여행을 하고, 패키지 여행을 더 선호하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호텔에 숙박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연령에 따른 관광객의 특성연구에서 Beverlee & Langmeyer(1981)는 50세 이상의 노인들은 휴식과 기분전환이 주된 여행 동기인데 친지방문을 통한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며 여행목적지로는 역

사적 유적지를 좋아하지만 50세 이하의 젊은 여행자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참가나 놀이시설을 갖춘 시설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또한 Hawkins(1997)는 미국의 노인관광자는 대부분 최근 3년간 미국 이외의 나라로 최소한 2회 여행을 했으며, 그들 중 4분의 1은 4회 혹은 그 이상 관광을 하고, 노인관광자는 매우 자주 여행을 하지만 반드시 한번에 장기간 여행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Tongren(1980)은 65세 이상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은퇴 전의 여행계획과 은퇴 후의 실행을 연구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의 남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 등 4개 지역에 거주하는 60~90세 미만인 노인을 대상으로 군집표본 추출하여 집단별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는 2005년 5월 25일에서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 50부를 배포하여 노인들과 관련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후 2005년 6월 5일~20일까지 450부를 배포하였다. 그 결과 총 415부(92%)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설문지의 응답에 성의가 없거나 미완성된 설문지를 제외한 379부(84%)의 설문지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관광특성 그리고 관광지선호속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관광지선호속성은 관광자가 관광지속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호의적 감정으로의 반응으로 자연매력성은 Rao & Thomas(1992), 가격적합성은 광노엽(1999)·진병렬(2001), 시설 다양성과 교육·문화의 중요성은 진병렬(2001)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이러한 관광지선호속성에 대한 변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Chi-Square 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그리고 Cronbach's α 계수로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72.8%였고 여자가 27.2%였으며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국졸 이하(37.7%)가 많았으나 대졸 이상도 20.1%를 차지함으로써 표본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월 소득은 전혀 없는 조사대상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한 달 용돈은 10~20만 원(39.5%)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과거의 직업은 관리·사무직(29.6%), 자영업(28%)이 가장 많았고 무직 또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그것은 조사대상자들 중에 주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택유형은 아파트(49.1%), 주택(44.1%)순이었고 거주구역은 남구(26.4%), 달서구(25.1%), 수성구(24.5%), 동구(24.0%) 등 네 지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2. 조사대상자의 관광특성

조사대상자의 관광특성을 살펴보면 관광하는 계절은 가을(35.3%)과 봄(33.4%)이 비슷하게 나왔으나 계절에 관계없이 관광(22.7%)하는 경우도 많았다. 관광경비조달은 평소에 모아 놓은 돈이 52.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자녀에게 도움을 받아 가는 경우는 23.2%였다. 관광 시 투숙장소는 여관과 여인숙(40.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민박(15.6%), 콘도미니엄(15.4%)순이었으며 관광 정보는 친구나 친척·이웃의 관광경험(53.0%)에서 주로 얻고 있었다.

국내 관광횟수는 3~4회(44.8%), 1~2회(29.7%), 5~6회(15.9%)순이었다. 그리고 해외관광을 해본 횟수는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36.3%)가 가장 많았으나 3회 이상도 34.2%를 차지해 반복 여행하는 노인도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관광형태는 가족동반관광(34.9%), 계나 이웃으로 구성된 관광(25.1%), 개별관광(19.6%), 패키지관광(15.3%) 순이었고 관광을 하고 싶은 국가에 대해서는 유럽(32.4%), 중국(23.3%), 일본(16.4%), 동남아시아(9.8%), 미국(9.5%) 순이었다.

3. 관광지선호속성 유형분류

1) 관광지선호속성 요인추출

조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선호속성이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추출 방법인 직각회전방법 중 Varimax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eigen 값이 1 이상인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1> 참조).

<표 1> 관광지선호속성 요인분석

문항		요인				Cronbach's α	평균		표준 편차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추억이나 향수를 주는 곳	0.782	0.116	0.131	0.021	0.763	3.71	3.93	0.76
	관광지의 안전도	0.770	0.039	0.099	0.170		4.22		0.74
	알맞은 기온이나 기후	0.660	0.120	0.140	0.065		3.87		0.68
요인 2	숙박시설 가격의 적합성	0.233	0.870	0.107	-0.004	0.798	3.86	3.84	0.71
	식음료(음식, 술, 음료수)가격의 적합성	0.188	0.840	0.099	-0.015		3.83		0.71
	관광지의 물가수준	-0.096	0.619	0.010	0.286		3.84		0.81
요인 3	즐겁고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설	-0.038	0.141	0.760	0.173	0.708	3.43	3.54	0.78
	휴식 및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	0.284	0.018	0.757	-0.151		3.64		0.88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시설	0.256	0.146	0.629	0.264		3.55		0.76
요인 4	교육적 관광프로그램	0.147	0.097	-0.019	0.838	0.756	3.76	3.70	0.79
	문화적인 행사	0.091	0.082	0.260	0.792		3.63		0.73
고유값		1.92	1.91	1.68	1.57				
총분산(%)		17.42	17.40	15.28	14.25				
누적분산(%)		17.42	34.82	50.10	64.34				

요인 1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억이나 향수를 주는 곳, 관광지의 안전도, 알맞은 기온이나 기후 등을 포함하며 자연의 매력성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연의 매력성은 관광지선호속성 전체분산의 17.42%를 설명한다. 요인 2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숙박시설 가격의 적합성, 식음료(음식, 술, 음료수)가격의 적합성, 관광지의 물가수준 등을 포함하며 가격의 적합성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격적합성은 관광지선호속성 전체분산의 17.40%를 설명한다. 요인 3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즐겁고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설, 휴식 및 긴장을 없앨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을 포함하며 시설의 다양성이라고 명명하

고자 한다. 이러한 시설의 다양성은 관광지선호속성 전체분산의 15.28%를 설명한다. 요인 4는 2개의 문항으로 교육적 관광프로그램, 문화적인 행사 등을 포함하며 교육·문화의 중요성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문화의 중요성은 관광지선호속성 전체분산의 14.25%를 설명한다. 이러한 4개의 요인은 관광지선호속성의 64.34%를 설명한다.

2) 관광지선호속성요인의 전반적 경향

<표 1>의 요인분석결과 나타난 4개의 요인과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관광지선호속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계수도 0.708~0.798로 기초연구에서 주장하는 0.7 이상의

Cronbach's α 계수(Nunally, 1967)보다 높게 나타나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들은 관광지선호속성을 자연의 매력성(M=3.93) > 가격의 적합성(M=3.84) > 교육·문화의 중요성(M=3.70) > 시설의 다양성(M=3.54)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인 자연의 매력성은 평균값이 3.93으로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인으로 관광지의 안전도(M=4.22), 알맞은 기온이나 기후(M=3.87), 추억이나 향수를 주는 곳(M=3.71) 순으로 나타나 요인 1에 속하는 하위문항은 평균값이 높았다. 특히 관광지의 안전도(M=4.22)는 요인 1의 하위문항뿐 아니라 관광지선호속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하위문항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계수(Cronbach's α)는 0.763이다.

요인 2인 가격의 적합성은 평균값이 3.84로 숙박시설 가격의 적합성(M=3.86), 관광지의 물가수준(M=3.84), 식음료(음식, 술, 음료수)가격의 적합성(M=3.83)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문항 중 특히 숙박시설 가격의 적합성(M=3.8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계수(Cronbach's α)는 0.798이다.

요인 3인 시설의 다양성은 평균값이 3.54로 관광지선호속성 요인 중에서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신체의 한계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노인의 특성에 맞는 휴식 및 긴장을 없앨 수 있는 시설(M=3.64)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시설(M=3.55), 즐겁고 다양

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설(M=3.43) 순이었다. 그리고 신뢰계수(Cronbach's α)는 0.708이다.

요인 4인 교육·문화의 중요성은 평균값이 3.70으로 하위문항은 교육적 관광프로그램(M=3.76), 문화적인 행사(M=3.63)순으로 나타났고 하위문항 중 특히 문화적인 행사보다 교육적 관광프로그램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계수(Cronbach's α)는 0.756이다.

3) 관광지선호속성의 세분화

본 연구에서는 한 군집 내의 모든 객체들은 다른 군집의 평균 벡터보다 그 군집의 평균 벡터에 더 가깝도록 군집시키는 K-평균 군집방법(K-Means Clustering)을 측정된 표본에 적용하여, 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관광지선호속성 특성이 반영되면서 배타적인 성질을 가진 4개의 군집들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제1군집으로 86명(22.7%), 제2군집은 69명(18.2%), 제3군집은 152명(40.1%), 제4군집은 72명(19.0%)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에 대한 요인점수 평균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군집 1은 표준화된 요인점수가 + - - +의 값을 갖는 유형으로 관광지선호속성 중 가격의 적합성, 시설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자연의 매력성과 교육·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 집단을 자연·교육선호형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군집 2는 요인점수가 -+ - + 값을 갖는 집단으로 관광지선호속성 중에서 자연의 매력성, 시설의 다양성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가격의 적합성, 교육·문화의 중요성요인에 대해서는 긍

<표 2> 관광지 선호속성에 따른 군집의 요인점수

관광지 선호속성 요인	군집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자연·교육 선호형	가격적합 선호형	시설다양 선호형	관광추구형
	N=86(22.7%)	N=69(18.2%)	N=152(40.1%)	N=72(19.0%)
제1요인(자연의 매력성)	0.420	-0.500	0.252	-0.075
제2요인(가격의 적합성)	-0.920	0.963	0.309	-0.477
제3요인(시설의 다양성)	-0.489	-1.138	0.882	-0.187
제4요인(교육·문화의 중요성)	0.552	0.270	0.166	-1.267

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집단이며 특히 가격의 적합성요인이 교육·문화중요성보다 강해서 가격적합 선호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군집 3은 요인점수가 + + + + 의 값을 갖는 집단으로 모든 요인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관광지 선호속성 요인 중 특히 시설의 다양성을 가장 선호하는 집단이기에 이를 시설다양 선호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군집 4는 요인점수가 - - - - 의 값을 갖는 집단으로 관광지 선호속성의 모든 요인에 대해 부정적인 집단으로 보이지만 <표 4>에 의하면 국내외 관광도 많이 하고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여행을 하는 등 관광에 긍정적인 면을 많이 지니고 있어 관광속성에 관계없이 관광을 즐기는 형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를 관광추구형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4. 관광지 선호속성 세분화에 따른 노인관광자의 일반적 특성

관광지 선호속성 세분화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 분석을 이용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연령

($P < 0.01$), 성별($P < 0.05$), 학력($P < 0.01$), 주택유형($P < 0.01$), 지역($P < 0.05$), 월 소득($P < 0.05$), 한 달 용돈($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문화와 자연·교육선호형은 70대(52.4%)인 남성(72.1%)으로 주로 동구지역(28.6%)의 아파트(51.2%)에 거주하고 있다. 옛날직업은 사무직·공무원·교사직(34.9%) 등이며 학력은 대졸 이상(25.6%)으로 집단 중 학력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월 소득은 100~200만 원 미만(27.9%)이고 한 달 용돈은 20~30만 원과 40만 원 이상(23.3%)을 같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으나 20~30만 원을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 한 달 용돈으로 20~30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가격적합선호형은 60대(47.8%)인 남성(72.5%)으로 남구지역(39.1%)의 주택(62.3%)에 거주하고 있다. 학력은 고졸(26.1%)이며 옛날 직업은 주로 단순노무직(36.2%)과 사무직·공무원·교사직(34.8%)에 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31.9%)이 가장 많았으며 한 달 용돈은 10~20만 원(29.0%)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3> 관광지선호속성 세분화에 따른 조사대상자와 일반적 특성의 차이분석

일반적특성		집단	자연· 교육 선호형	가격적합 선호형	시설다양 선호형	관광추구형	X ² 통계량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연령	60대		26(31.0)	33(47.8)	54(35.5)	24(33.3)	20.87** df=6
	70대		44(52.4)	22(31.9)	86(56.6)	44(61.1)	
	80대		14(16.7)	14(20.3)	12(7.9)	4(5.6)	
	계		84(100)	69(100)	152(100)	72(100)	
성별	남		62(72.1)	50(72.5)	102(67.1)	62(86.1)	80.96* df=3
	여		24(27.9)	19(27.5)	50(32.9)	10(13.9)	
	계		86(100)	69(18.2)	152(100)	72(100)	
학력	무졸		8(9.3)	10(14.5)	8(5.3)	0(0)	31.63** df=12
	국졸		20(23.3)	15(21.7)	62(40.8)	20(27.8)	
	중졸		16(18.6)	12(17.4)	20(13.2)	20(27.8)	
	고졸		20(23.3)	18(26.1)	40(26.3)	16(22.2)	
	대졸 이상		22(25.6)	14(20.3)	22(14.5)	16(22.2)	
	계		86(100)	69(100)	152(100)	72(100)	
주택 유형	주택		38(44.2)	43(62.3)	78(52.0)	26(36.1)	21.10** df=6
	아파트		44(51.2)	24(34.8)	72(48.0)	46(63.9)	
	기타		4(4.7)	2(2.9)	0(0)	0(0)	
	계		86(100)	69(18.3)	150(100)	72(100)	
지역	동구		24(28.6)	14(20.3)	30(20.0)	22(30.6)	17.35* df=9
	남구		18(21.4)	27(39.1)	40(26.7)	14(19.4)	
	수성구		20(23.8)	14(20.3)	34(22.7)	24(33.3)	
	달서구		22(26.2)	14(20.3)	46(30.7)	12(16.7)	
	계		84(100)	69(100)	150(100)	72(100)	
소유 형태	자가		76(88.4)	62(89.9)	124(81.6)	62(86.1)	8.39 df=6
	전세		8(9.3)	7(10.1)	16(10.5)	6(8.3)	
	기타		2(2.3)	0(0)	12(7.9)	4(5.6)	
	계		86(100)	69(100)	152(100)	72(100)	
옛날 직업	단순노무직· 무직(주부)		26(30.2)	25(36.2)	62(41.3)	18(25.0)	14.97 df=12
	자영업(자유업· 개인사업)		24(27.9)	16(23.2)	42(28.0)	24(33.3)	
	사무직· 공무원· 교사직		30(34.9)	24(34.8)	36(24.0)	22(30.6)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6(7.0)	2(2.9)	6(4.0)	4(5.6)	
	기타		0(0)	2(2.9)	4(2.7)	4(5.6)	
	계		86(100)	69(100)	150(100)	72(100)	
월 소득	없다		14(16.3)	13(18.8)	48(31.6)	8(11.1)	24.99* df=12
	100만 원 미만		20(23.3)	22(31.9)	30(19.7)	12(16.7)	
	100~ 200만 원 미만		24(27.9)	18(26.1)	42(27.6)	28(38.9)	
	200~ 300만 원		18(20.9)	12(17.4)	18(11.8)	14(19.4)	
	300만 원 이상		10(11.6)	4(5.8)	14(9.2)	10(13.9)	
	계		86(22.7)	69(100)	152(100)	72(100)	
한 달 용돈	10만 원 미만		16(18.6)	16(23.2)	46(30.7)	10(13.9)	25.37* df=12
	10~ 20만 원		16(18.6)	17(29.0)	36(24.0)	16(22.2)	
	20~ 30만 원 미만		20(23.3)	12(17.4)	20(13.3)	12(16.7)	
	30~ 40만 원 미만		14(16.3)	4(5.8)	6(4.0)	6(8.3)	
	40만 원 이상		20(23.3)	20(24.6)	42(28.0)	28(38.9)	
	계		86(100)	69(100)	150(100)	72(100)	

주: *p<.05 **p<.01 ***p<.001

<표 4> 관광지 선호속성 세분화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관광특성과의 차이분석

관광특성		집단	자연·교육 선호형	가격적합 선호형	시설다양 선호형	관광추구형	X ² 통계량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국내 관광 횟수	1~2번		28(32.6)	18(26.9)	42(27.6)	20(27.8)	18.80* df=9
	3~4번		18(20.9)	26(38.8)	40(26.3)	16(22.2)	
	5~6번		30(34.9)	17(25.4)	38(25.0)	14(19.4)	
	6번 이상		10(11.6)	6(9.0)	32(21.1)	22(30.6)	
	계		86(100)	67(100)	152(100)	72(100)	
해외 경험 횟수	없다		28(34.1)	28(40.6)	60(40.0)	18(25.0)	6.74 df=6
	1~2회		24(28.6)	17(24.6)	46(30.7)	24(33.3)	
	3회 이상		32(37.3)	24(34.8)	44(29.3)	30(41.7)	
	계		84(100)	69(100)	150(100)	72(100)	
해외 관광 형태	가족과 같이 간 관광		10(19.2)	18(46.2)	38(42.2)	16(29.6)	22.42* df=12
	계나 이웃으로 구성된 관광		10(19.2)	9(23.1)	26(28.9)	14(25.9)	
	개별관광		14(23.1)	4(10.3)	16(17.8)	12(22.2)	
	여행사에서 준비된 단체관광		12(23.1)	6(15.4)	8(8.9)	10(18.5)	
	기타		6(11.5)	2(5.1)	2(2.2)	2(3.7)	
	계		52(100)	39(100)	90(100)	54(100)	
선호 국가	중국		20(23.8)	10(14.5)	42(27.6)	16(22.2)	30.25* df=15
	일본		14(16.7)	16(23.2)	22(14.5)	10(13.9)	
	동남아시아		12(14.3)	11(15.9)	12(7.9)	2(2.8)	
	미국		4(4.8)	8(11.6)	16(10.5)	8(11.1)	
	유럽		22(26.2)	18(26.1)	48(31.6)	34(47.2)	
	기타		12(14.3)	6(8.7)	12(7.9)	2(2.8)	
	계		84(100)	69(100)	152(100)	72(100)	
관광 하는 계절	봄		22(25.6)	24(34.8)	62(40.8)	15(25.7)	31.37** df=12
	여름		4(4.7)	2(2.9)	16(10.5)	8(11.4)	
	가을		38(44.2)	33(47.8)	36(23.7)	26(37.1)	
	겨울		2(2.3)	0(0)	0(0)	0(0)	
	계절에 관계없다		20(23.3)	10(14.5)	38(25.0)	18(25.7)	
	계		86(100)	69(100)	152(100)	70(18.6)	
관광 경비 조달	자녀에게 도움		26(30.2)	7(10.8)	46(30.3)	8(11.1)	53.34*** df=12
	평소에 모아놓은 돈		40(46.5)	34(52.3)	72(47.4)	52(72.2)	
	계나 적금		4(4.7)	10(15.4)	2(1.3)	2(2.8)	
	연금		10(11.6)	14(21.5)	18(11.8)	4(5.6)	
	기타		6(7.0)	0(0)	14(9.2)	6(8.3)	
	계		86(100)	65(100)	152(100)	72(100)	
교통 수단	자가용		22(25.6)	16(23.9)	40(26.3)	30(41.7)	14.15 df=12
	기차		6(7.0)	8(11.9)	16(10.5)	4(5.6)	
	고속/일반버스		14(16.3)	9(13.4)	18(11.8)	12(16.7)	
	관광전세버스		38(44.2)	32(47.8)	72(47.4)	22(30.6)	
	기타		6(7.0)	2(3.0)	6(3.9)	4(5.6)	
	계		86(100)	67(100)	152(100)	72(100)	

관광특성		집단	자연·교육 선호형	가격적합 선호형	시설다양 선호형	관광추구형	X ² 통계량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투숙 장소	여관·여인숙		40(46.5)	26(37.7)	56(37.3)	32(44.4)	19.06 df=12
	민박		6(7.0)	9(13.0)	32(21.3)	12(16.7)	
	호텔		10(11.6)	12(17.4)	20(13.3)	10(13.9)	
	콘도니미엄		16(18.6)	6(8.7)	26(17.3)	10(13.9)	
	기타		14(3.7)	16(23.2)	16(10.7)	8(11.1)	
	계		86(100)	69(100)	150(100)	72(100)	
관광 정보	친구, 친척, 이웃의 관광경험		32(37.2)	33(47.8)	98(64.5)	38(52.8)	23.74* df=12
	여행사 직원		12(14.0)	6(8.7)	16(10.5)	10(13.9)	
	대중매체		20(23.3)	10(14.5)	16(10.5)	12(16.7)	
	자신의 여행경험이나 여행지식		18(20.9)	14(20.3)	16(10.5)	8(11.1)	
	기타		4(4.7)	6(8.7)	6(3.9)	4(5.6)	
	계		86(100)	69(100)	152(100)	72(100)	

주: *p<.05 **p<.01 ***p<.001

시설다양선호형은 70대(56.6%)인 남성(67.1%)으로 이루어졌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32.9%)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집단이다. 학력은 국졸(40.8%)로 달서구(30.7%)의 주택(52.0%)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옛날직업은 단순노무직이나 무직(41.3%)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집단의 특징상 여성이 많이 포함되어 무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월 소득은 없다(31.6%)가 가장 많았으며 한 달 용돈은 10만 원 미만(30.7%)을 사용하였다.

관광추구형은 70대(61.1%)인 남성(86.1%)으로 학력은 국졸(27.8%)과 중졸(27.8%)로 같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성구(33.3%)의 아파트(63.9%)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집단이다.

월 소득은 100~200만 원(38.9%)이지만 300만 원 이상(13.9%)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월 소득이 높은 집단이며 한 달 용돈은 40만 원(38.9%) 이상을 쓰는 집단이다. 옛날직업은 주로 자유업·개인사업인 자영업(33.3%)이었다.

5. 관광지선호속성 세분화에 따른 노인관광자의 관광특성

관광지선호속성 세분화에 따른 관광특성과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 분석을 이용하였다(<표 4> 참조). 그 결과 국내관광횟수(P<0.05), 해외관광형태(P<0.05), 관광하는 계절(P<0.01), 관광경비조달방법(P<0.001), 관광정보(P<0.05), 선호하는 국가(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교육선호형은 국내관광을 1년에 5~6회(34.9%) 정도 가고 해외관광횟수는 3회 이상(37.3%)이 많아 여행을 즐기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관광형태는 개별관광(23.1%)이나 여행사에서 준비된 단체관광(23.1%)을 주로 하며 관광경비조달은 평소에 모아놓은 돈(46.5%)을 주로 이용하지만 자녀에게 도움(30.2%)을 받아 관광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다. 관광정보는 친구·친척·이웃의 관광경험(37.2%)에서 얻었으나 대중매체(23.3%)와 자신의 관광경험이나 관광지식(20.9%)

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관광경험이나 관광지식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더 믿고 관광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관광하는 계절은 주로 가을이며(44.2%) 선호하는 해외국가로는 유럽(26.2%), 중국(23.8%) 순이었다. 교통수단으로는 관광전세버스(44.2%)를 이용하며 투숙장소로는 여관·여인숙(46.5%)을 주로 이용한다.

가격적합 선호형은 국내관광을 연간 3~4번(38.8%) 하고 해외관광경험이 없는(40.6%) 집단이다. 여행경비조달은 평소에 모아둔(52.3%) 돈으로 관광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21.5%), 계·적금(15.4%)을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단으로서 경제적으로 짜임새 있는 관광을 준비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국가로는 유럽(26.1%), 일본(23.2%)이었으나 동남아시아(15.9%)를 집단 중 가장 선호하는 집단이다. 이는 동남아시아가 가격 면에서 비교적 저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을 선호하는 집단의 특성상 나타난 결과라고 이해된다. 여행하는 계절은 가을(47.8%)에 주로 가며 교통수단으로 관광전세버스(47.8%)를 주로 이용하나 기차(11.9%)를 집단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단이다. 투숙 장소로는 여관·여인숙(37.7%)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시설다양 선호형은 국내관광을 연간 1~2회(27.6%) 하였고 해외관광 경험은 40.0%가 없었다. 선호하는 국가는 유럽(31.6%)이며 집단 중 중국(27.6%)을 가장 선호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여행정보는 친구·친척 이웃의 관광경험(64.5%)에서 주로 얻었다. 이는 노인들이 신문이나 TV 같은 공식적 정보보다 친구나 친척 같은 비공식 집단의

구전에 더 영향을 받음을 의미하며 한국노년층의 여행상품 구매행동을 연구한 김상희(1997)는 여행정보원천으로 가족과 친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원천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1991)의 노인정보 탐색조사에서도 가족, 친척의 말을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다른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행경비조달은 주로 평소에 모아놓은 돈(47.4%)이나 자녀에게 도움(30.3%)을 받아 봄에 주로 관광(40.8%)을 하였다. 그리고 교통수단으로는 관광전세버스(47.4%)를 이용하고 투숙장소는 여관이나 여인숙(37.3%)을 이용하며 민박의 이용률(21.3%)이 가장 큰 집단이다.

관광추구형은 국내관광횟수가 7회 이상(30.6%) 차지해 국내관광을 가장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해외관광도 3회 이상(41.7%)으로 관광을 가장 자주 가는 집단으로 이해된다. 해외관광형태는 주로 가족과 같이 간 관광(29.6%)이나 계나 이웃으로 구성된 관광(25.9%)을 하며 여행정보는 친구·친척·이웃의 관광경험(52.8%)에서 주로 얻었다. 선호하는 주된 국가는 유럽(47.2%)으로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여행조달경비는 주로 평소에 모아 놓은 돈(72.2%)을 사용하며 여행은 주로 가을(37.1%)에 하지만 계절에 관계없다(25.7%)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교통수단도 다른 집단은 전세관광버스가 많았으나 이 집단만은 자가용(41.7%)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본인이 원하는 관광지를 선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행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의 특징을 반영하고 긍정적인 관광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교육선호형은 70대 대졸 이상의 남성으로 동구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옛날 직업으로는 사무직·공무원·교사직 등에 종사하며 한 달 용돈으로는 20~30만 원 미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집단은 관광전세버스를 타고 국내

관광을 연간 5~6번 하고 투숙장소는 여관, 여인숙이나 콘도미니엄을 이용한다. 해외관광은 개별관광이나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단체관광을 3번 이상 간 경험이 있으며 선호하는 국가는 유럽과 중국이다. 여행하는 계절은 주로 가을이고 관광경비는 평소에 모아둔 돈을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도움

<표 5> 관광지선호숙성 세분화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관광특성

주거가치세분화		자연·교육선호형	가격적합선호형	시설다양선호형	관광추구형	
관광특성						
일반적 특성	대상	70대 남성	60대 남성	70대 남·여	70대 남성	
	주택유형	아파트	주택	주택	아파트	
	지역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	
	학력	대졸이상	고졸	국졸	국졸, 중졸	
	옛날직업	사무직·공무원 교사직	단순노무직·사무 직·공무원·교사직	노무직, 무직	자영업	
	월 소득	100만 원	100만 원 미만	없다	100~200만 원	
	한 달 용돈	20~30만 원	10~20만 원	10만 원 미만	40만 원 이상	
관광특성	국내관광	국내관광 횟수	5~6회	3~4회	1~2회	7회 이상
		교통수단	전세관광버스	전세관광버스, 기차	전세관광버스	자가용
		투숙 장소	여관·여인숙, 콘도미니엄	여관·여인숙	여관·여인숙, 민박	여관·여인숙
	해외관광	해외관광 경험횟수	3회 이상	없다	없다	3회 이상
		해외관광 형태	개별관광, 단체관광	-	-	가족과 같이 한 관광
		선호하는 국가	유럽, 중국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중국	유럽
	국내·해외공통	관광하는 계절	가을	가을	봄	계절에 관계 없음
		관광경비조달	평소에 모아둔 돈, 자녀에게 도움	평소에 모아둔 돈, 연금, 계·적금	평소에 모아둔 돈, 자녀에게 도움	평소에 모아둔 돈
		관광정보	친구·친척·이웃 의 관광경험, 대중 매체, 자신의 여행 경험이나 여행지식	친구·친척·이웃 의 관광경험	친구·친척·이웃 의 관광경험	친구·친척·이웃 의 관광경험

을 받고 친구·친척·이웃의 관광경험과 대중매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여행지식을 통해 정보를 얻어 관광을 많이 하는 집단이다.

가격적합선호형은 60대 고졸의 남성으로 남구 지역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옛날직업으로는 단순노무직·사무직·공무원·교사직에 근무하였고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 한 달 용돈은 10~20만 원을 사용한다. 전세관광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 국내여행을 1년에 3~4번 하고 투숙장소는 여관·여인숙을 이용한다. 해외관광은 가본 경험이 없으며 선호하는 국가는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순이었다. 가을에 주로 관광을 하며 관광경비는 평소에 모아둔 돈이나 연금, 계·적금을 이용하여 관광에 대한 자금계획을 하는 집단으로 친구·친척·이웃의 관광경험에서 정보를 얻어 관광을 하였다.

시설다양선호형은 70대 국졸의 남·여로 달서구지역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옛날직업은 노무직·무직이며 월 소득은 없고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 미만을 사용하였다. 전세관광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 국내여행은 1년에 1~2번 가고 여관·여인숙이나 민박을 이용한다. 해외관광은 가본 경험이 없으며 선호하는 국가는 유럽과 중국이다. 봄에 주로 관광을 하고 평소에 모아 둔 돈이나 자녀에게 도움을 받아 관광을 하고 친구·친척·이웃의 관광경험에서 관광정보를 얻는다.

관광추구형은 70대 중졸 남성으로 수성구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옛날직업으로는 자영업이었고 월 소득은 100~200만 원, 월 40만 원 이상의 용돈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가용을 타고 국내여행을 1년에 7번 이상 가고 여관이나 여인숙에 주로 투숙한다. 해외관광 경험은 3번 이상 가장

많이 한 집단으로 주로 가족과 같이 관광을 가고 선호하는 국가는 유럽이다. 이 집단은 계절에 관계없이 관광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며 관광경비는 평소에 모아 놓은 돈을 사용한다. 그리고 관광 정보는 친구·친척·이웃의 관광경험을 통해 얻었으며 가장 관광을 즐기는 집단이라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관광지가 관광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으로 개발되어 국내외 관광시장에 제공됨으로써 노인관광자에게 적합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지선호속성을 세분화하여 관광특성을 알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지선호속성을 세분화한 결과 자연·교육선호형, 가격적합선호형, 시설다양선호형, 관광추구형 등 네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자연·교육선호형, 가격적합선호형, 시설다양선호형은 기존의 연구에서 다뤘던 세분화 유형인데 관광추구형은 새롭게 등장한 유형으로서 관광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노인관광자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관광특성에서 국내관광은 연 3~4회, 계절도 봄과 가을에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알맞은 기온이나 기후인 봄, 가을에 관광을 한다는 것으로 자연에서 쉬며 휴식도 취하고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친자연적 관광지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김상희(1997)는 노년층의 여행상품 구매행동 특성 중 노년층은 가족·친척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행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해외관광 형태에서 가족동반 관광이 많았다. 노인관광자들이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남에

게 의존하는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노인관광 상품 구성 시 가족과 같이 여행하는 패키지 성격의 여행으로 소구하여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선호국가에서 유럽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순이었다. 1989년에 해외여행이 전면자유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관광을 해보지 못한 노인이 많아 사회관광과 같은 복지관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더불어 관광정보원천에서도 친구나 친척, 이웃의 관광경험이 많았는데 지식수준의 향상 등으로 공식매체를 통해 많은 노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선호속성을 군집분석을 통해 4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자연·교육 선호형은 70대 남성에 대졸 이상의 학력, 연간 국내관광 횟수는 5~6회, 선호하는 국가는 유럽과 중국이었다.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개별관광, 단체관광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격적합선호형은 60대 남성에 고졸의 학력, 연간 국내관광횟수는 3~4회, 선호국가는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였다. 동남아시아를 선호하는 것은 가격에 대해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관광추구형은 70대 남성에 국내관광 횟수는 연간 7회 이상, 교통수단은 자가용, 관광도 계절에 관계없이 하며 해외관광도 3번 이상으로 다른 집단의 노인관광자와 달리 관광을 가장 적극적으로 즐기고 참여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이러한 집단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데 자연·교육선호형은 교육수준이 높아 역사나 문화관광자원이 많은 관광지를 조성·유인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적합선호형은 경제적으로 짜임새 있고 비교적 저렴한 관광지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시설다양선호형은 여성 노인관광

자가 많으므로 쇼핑이나 시설에 대한 이용빈도를 높이고 관광추구형은 관광에 대해 적극적인 스타일로서 다양한 관광경험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나 관광루트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집단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전략을 관광지 개발에 반영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교육선호형은 관광지의 안전도에 관한 선호속성이 크므로 노인관광자에게 알맞은 관광지 개발 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고려해 다니기 쉽고 안전하며 친숙한 이미지의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 가격적합선호형은 숙박시설 가격적합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관광자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투숙할 수 있는 중저가호텔(Budget Hotel)의 건설이 필요하다. 교통수단으로 기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차와의 접근성을 연계한 관광지 개발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자연·교육선호형과 가격적합선호형 모두 가을에 관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책, 등산이나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관광루트 조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시설다양선호형은 젊은층이 야간 유흥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휴식과 긴장해소를 하며 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크므로 이에 부응한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추구형은 가족과 같이 한 관광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가족과 함께 관광을 할 수 있는 휴양형 관광지 개발과 함께 콘도미니엄형 숙소의 건립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재의 노인을 대상으로 관광지선호속성과 관광특성과의 관계를 보았지만 앞으로 노

인이 될 예비 실버계층도 연구하여 고령사회의 관광지개발을 연구하였으면 한다. 지역적으로 대구시에 거주하는 노인들만이 아니라 농촌이나 다른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광지선호속성을 파악하는 데 표준화된 정교한 측정도구가 미흡하므로 척도개발을 위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동우. 1998. "관광의 심리적 체험과 만족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곽노엽. 1999. "관광지 속성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희. 1997. "한국 노년층의 여행상품 구매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석희. 1989. *신관광자원론*. 서울 : 명보문화사.
- 이애주. 1998. "관광지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정태. 1993. "관광지 개발계획을 위한 설계환경의 평가에 관한 제언". 경기대학교 논문집 제32집 : pp359-382.
- 정익준. 2001. *관광사업론*. 서울 : 형설출판사.
- 진병렬. 2001. "관광자 가치가 관광지선호속성과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1. "노인소비생활실태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보고서 : pp91-94.
- Bartos, R. 1976. "Social Change and the Travel Marketer. Marketing Travel and Tourism". Seventh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Salt Lake City : Travel Research Association : p194.
- Beverlee, A. B. and Langmeyer, B. L. 1981. "The Under-50 over-50 Travelers: A Profile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0(Spring) : p35.
- Fannin, R. 1985. "The Greening of the Maturity Market". *Marketing and Media Decisions* 20(March) : pp72-80.
- Goodrich, J. N. 1977. "Benefit Bundle Analysis: An Empirical Study of International Travels".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Fall) : pp6-9.
- Hawkins, M. 1997. "The U.S and Canadian Markets for International Pleasure Travel: A Focus on Seniors".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nior Tourism. WTO. Madrid. May : pp24-25.
- Lew, A. A. 1987. "A Framework of Tourist Attractions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4) : pp553-575.
- Mayo, E. J. 1974. "The Psychology of Choice in the Lodging Market". Bedford Park : Illinois. 3M National Advertising Co : p31.
- Nunnally, J. C. 1967.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 McGraw-Hill.
- Parker, S. 1979. "The sociology of leisure". London : George Allen & Unwin : p59.
- Pohlmann, S. 2001. "The aging of society as a global challenge-German impulses: integrated report on German expert contributions, developed by the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January). Berlin : p78.
- Rao, S. R. Thomas. 1992. "Activity Preference and Trip-Planning Behavior of the U. S. Outbound Pleasure Travel Marke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1 : pp3-11.
- Tongren, H. N. 1980. "Travel Plans of the Over-65 Market Pre and Postretire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19(2) : pp7-12.

- 논문 접수일: 2006. 10. 10
- 심사 시작일: 2006. 10. 13
- 심사 완료일: 2006. 11. 29

ABSTRACTS

A Study on the Senior Tourism Characteristics by the Segmentation of Preference Attributes for Destination : A Case of Daegu City

Jae-Yong Gwak Lecture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Catholic Univ. of Daegu (Primary Author)
Jeung-Soon Ha Instructor, Family Life Welfare and Housing, Catholic Univ. of Daegu

※ Key words: Senior Tourism, Preference Attributes for Destination, Tourism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enior Tourism Characteristics by the Segmentation of Preference Attributes for Destination.

The data used in this thesis is collected from the aged over 60 under 90 who live in Nam-Gu, Dalseo-Gu, Soosung-Gu and Dong-Gu of Daegu city by means of cluster sampling first and from those chosen samples I use convenience sampling again. Through a preliminary investigation 450 lists of questions were distributed from June 5, 2005 to June 20, 2005 and from them 379 (84%) lists were used. SPSS WIN 12.0 was used to do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luster analysis, Chi-Square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of the data. Major findings are the following:

Type of people who preferred education and nature in tour, found their favorite destinations to be Europe and China and they travel by group tour hosted by travel company and they traveled foreign country for more than 3 times.

Type of people who preferred suitable cost has no experience in touring foreign countries, their favorite destinations are Europe, Japan, South East Asia.

Type of people who preferred various facilities, usually trips in spring and collection tour information from friends, neighbours and relatives. They saved money to travel and get monetary help from their children for travel.

Type of people who preferred to concentrate on tour only, liked Europe and they spend travel money from what they have been saved. and they get tour information from friends, neighbours and relatives, this type of group is most enjoying tour experience.